

위헌적 판결 피해자 구제 길 열린다

이춘석 의원, 예외적 재판소원 허용 법안 발의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법원의 판결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심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이러한 취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사진)은 '현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현재와 대법원 간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논란을 일단락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성이 농후한 법원 판결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재판의 독립을 보호해 주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신성시하거나 성역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3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두어야 재판을 사법부의 전유물 정도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모두 발언 듣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유성엽, 4일~6일 평양행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사진)이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에 참석할 정당 대표단으로 4~6일 2박3일간의 방북길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11명, 민주평화당 3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국회출입기자 2명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 정당 대표단은, 이번 평양 방북을 통해 10.4 선언 11주년을 기념하고 의원 외교를 통한 남북 평화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한편 유성엽의원은 전라북도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대표단에 포함됐다. /김진성 기자

농기계 사고 매년 1500건... 경북 최다

김종회, 현장 맞춤형 대책 마련 촉구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2015년부터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조선, 전북 김제·부안·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 농기계 사고는 경북(17%, 1,287건)

에서 가장 많이 발생, 전남(16%, 1,228건), 경남(15.8%, 1,187건), 전북(14%, 1,067건), 총 남(13.6%, 1,022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1% (3,739건)였고, 운전자의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도 28% (1,916건)에 이르렀다. 농기계 사고의 주요 원인인 운전부주의 사고는 2016년 이후 급증했다.

2015년까지 연 평균 600건이었던 것, 2016년 910건, 2017년 977건, 2017년의 경우 경남에서 22%(216건), 경북에서 20%(200건) 운전부주의 사고가 발생했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2015년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위해 등화장치 지원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와 대규모화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농기계 사용은 더욱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단순한 예산지원이나 안전교육 외에 농기계 사고 유형 및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현장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가짜뉴스 유포·제작자 엄정 처벌"

이낙연 "민주주의 교란범 단속·제도개선안 마련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과 조직·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엄정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며 "유튜브, SNS(사회간접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허위·허조까지 나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公藏)이라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를 통제할 새로운 체계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체계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관련 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으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해 달라"며 범부처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적·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며 민간의 가짜뉴스 대응도 당부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민주당 "심재철, 집주인 '문단속' 나무라는 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논란에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이수시개까지 도둑질한 것은 감추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와 대규모화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농기계 사용은 더욱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단순한 예산지원이나 안전교육 외에 농기계 사고 유형 및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현장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전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국회의원의 발언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불성실이나 강변에 지나지 않았다"며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주

변 음침침에서 사용된 3만여원의 소액까지 들고 나와 무조건 위법으로 몰아가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심재철 감싸기에 나선 한국당은 심 의원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대검찰청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항의 방문하는 등 사상 초유의 행태로 사법부의 독립마저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정부 감시를 위한 대정부질문마저 '가짜뉴스 살포장'으로 변질시킨 한국당과 심 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심 의원은) 즉각 기재위에서 사임하고 불법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10월 20(토)~21(일) 변산해수욕장 일원

2018 변산 노을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멋지게 어우러진 가을철 부안군 대표축제입니다.

- 놀거리 : 가족단위 캠핑, 노을사진 찍기, 맨손 전어잡기·무로숨마 등 체험활동
- 볼거리 : 변산노을, 불꽃놀이, 기념공연(출연:변진섭, 김학래 등), 영화 상영(변산)
- 먹거리 : 특산물 전시 및 시식

